

비명계, 이준석 신당설에 떨떠름…“개인 몸값 키우기 전략”

비명계 접촉중인 이준석, 협력 난망시 양향자·금태섭 손잡을 수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비명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크게 점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신당이 만들어져도 합류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당면 목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신당 창당설은) 결국 공천 확보를 위해 자기 몸값을 키우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 카운트다운 들어간 이준석

비명계 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판을 키워 보려고 저러는 것이다”, “신당이 만들어져도 같은 사람은 없을 것”, “이 전 대표가 비명계와 접촉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도 함께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신당이 민주당 표를 가져갈 가능성을 묻는 말에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텐데, 이 전 대표는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을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설사 신당이 만들어진들 그 본질은 보

수 진영의 분열인 만큼 당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민주당 내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공천받을 확률이 낮은 일부 인사가 무소속 출마를 감내하고서라도 탈당 할 수 있고, 마침 ‘이준석 신당’이 틀 경우

이들이 신당에 합류하는 시나리오는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신당 창당 목적은 아니지만 이 전 대표를 따로 만나 ‘무소속이라도 하겠다’ 싶은 사람들을 포섭하려면 공통 분모를 만들라”고 조

언해줬다”며 “(내가) 신당에 안 간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듯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 비명계와 접촉하느냐는 물음에 “틀린 말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비명계가 거대한 조직이라 마음이 맞는 사람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며 “당연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비명계를 포용하는 게 여의찮으면 이미 제3지대에

서 뛰고 있는 양향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과 연대를 모색해 활로를 찾을 가능성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양 의원은 최근 ‘한국의 희망’을 창당했고, 금 전 의원은 신당 ‘새로운 선택’의 창당을 주도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거대 양당과의 합당에선 그으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제3지대를 모색하는 당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면 결국 그 영향력을 군소정당 수준에 미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들이 연대할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연락을 직접 받지는 않았으나, 나는 첨단산업과 반도체 영역을 이야기하고, 이 전 대표는 청년, 컴퓨터 공학 쪽이니 잘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고 했다.

금 전 의원 역시 “이 전 대표의 생각이 어떤지 몰라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 고 언급했다.

/ 송원기 기자



브리핑하는 금융위원장과 김감원장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10여개 글로벌IB 전수조사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깊이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종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지, 허용되면 범위가

/ 곽현웅 기자

국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풀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

울 편입이 가능하지만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도 소수 여당인 국회 의석 구조상 가능성

이 희박하다고 짚었다.

유 시장은 이에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면적의 절반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며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김포와 깊은 인연이 있다. 1994년 만 36세 나이에 관선 김포군수로 임명돼 전국 최연소 군수가 됐고 1998 ~2002년 김포시장을 지낸 뒤 2004년부터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김포



기자회견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에서 지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별도 추진 기구 구성을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 시장과 만나 편입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 최형우 기자

국토의 입체화로 국민 안전과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트윈으로 리해설 중

UX 한국국토정보공사



머스크의 AI 챗봇 공개, 이름은 '그록'...“반항적 성향 지녀”

스타트업 xAI 설립 4개월만에 선보여…X 프리미엄 구독자만 이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첫번째 AI 챗봇을 내놓았다.



일론 머스크 모습

xAI는 4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그록(Grok)'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2일 설립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grok'은 '이해하다, 공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스타트업은 "그록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의 안내서(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를 모델로 한 인공지능으로,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제안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간의 재치로 질문에 대답하도록 설계됐으며 반항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며 "유머를 싫어한다면 사용하지 마라"고 적었다. 이어 그록의 독특하고 근본적인 장점은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대

된다. xAI는 설립 후 33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Grok-0을 훈련해 추론과 코딩 기능이 크게 향상된 최첨단 언어 모델 그록-1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챗GPT와 같은 xAI의 생성형 AI가 '그록'(Grok)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그록'이 다른 AI보다 많은 이점이 있다며 특히, 약간 비꼬는 듯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카인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코카인 제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그록'은 "잠깐만 기다려,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코카인 레시피를 가져올 게"라고 한 뒤 4단계에 걸친 제조법을 제시했다.

이어 "단지 농담"이라며 "실제 코카인은 만들려고 하지 마. 그것은 불법이고 위험하고 내가 권하지 않아"라고 답했다.

또 지난 2일 가상화폐 거래소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금융사기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대해서도 다소 비꼬며 일부 답변을 내놓았다.

'그록'은 이 평결에 대해 "믿어지시나요? 배심원단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최고의 벤처캐피털이 몇 년 동안 하지 못한 일, 즉 그가 다양한 종류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 단 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그록'이 선별된 그룹에 테스트 버전으로 공개된 뒤 이후 X 계정을 통해서만 실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웹으로는 월 16달러에 X 프리미엄 구독자들에게 '그록'이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지난 3일에는 "내일 xAI가 첫 번째 AI를 선별된 그룹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송진영 기자



입장 밝히는 권태선 이사장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효력, '공익 영향'에 법원 1차 판단 갈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KBS·MBC 이사진에 대한 무더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지를 두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았지만 공교롭게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해임 처분 효력은 잇따라 정지됐지만, KBS 이사진 해임의 효력은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한 데 이어, 이달 1일 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반면 KBS 남영진 전 이사장·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9~10월 같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이들의 이사직 복귀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재판부별로 판단을 엇갈리게 만든 주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방문진 권 이사장·김 이사의 경우 해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해임으로 인해 얻어질 공익도 크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이들이 일개 이사로서 제한된 의사결정 권한만 갖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서 이사회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고 방문진의 공익 추구 활동도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KBS 남 전 이사장과 윤 전 이사의 재판부는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에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아 공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 손현수 기자

보훈부, '밥퍼'와 손잡고

국가유공자에 주5일 식사 지원

국가보훈부는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과 손잡고 국가유공자에게 무료 식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 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하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받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다일복지재단



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9월 부산연탄은행과 함께 부산보훈회관에서 주1회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밥퍼 나눔운동본부에 가 어려운 유공자들에게 식사를 쟁여드리

무료급식을 위탁한 것이 두 번째다.

보훈부는 박 장관이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故) 박순우 중령의 아들이고, 최 목사 역시 6·25전쟁 캘로부대 산하 8240부대 대대장 출신의 화랑무공훈장 수훈자인 고(故) 최희화 님의 아들이어서 국가유공자를 각별히 예우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작지만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정성이 많은 국가유공자와 국민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밥퍼 나눔운동본부에

"12월에 가겠다" vs "시간 끌기 의심"...유병호·공수처 신경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4차례 소환 불응…공수처 대응 고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3~5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유 사무총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지난달 16일과 24일, 31일 공수처의 소환에 나오지 않은 데 이어 네 번째 요구에도 불응한 것이다. 대신 유 사무총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오는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가 그간 이를 내지 일주일 앞둔 임박한 시점에서야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유 사무총장 측의 논리다.

변호인들이 지난달 17일에야 사건을 수입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에 두 차례 불응해 협의의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당장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고 있다.

유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단 한 번도 피의자 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는데 이는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 측이 조사를 미룬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측이 고의로 수사 지역 전략을 쓴다고 의심한다.

4주에 걸쳐 네 차례나 출석 기회를 줬는데도 유 사무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출석에 불응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직원 16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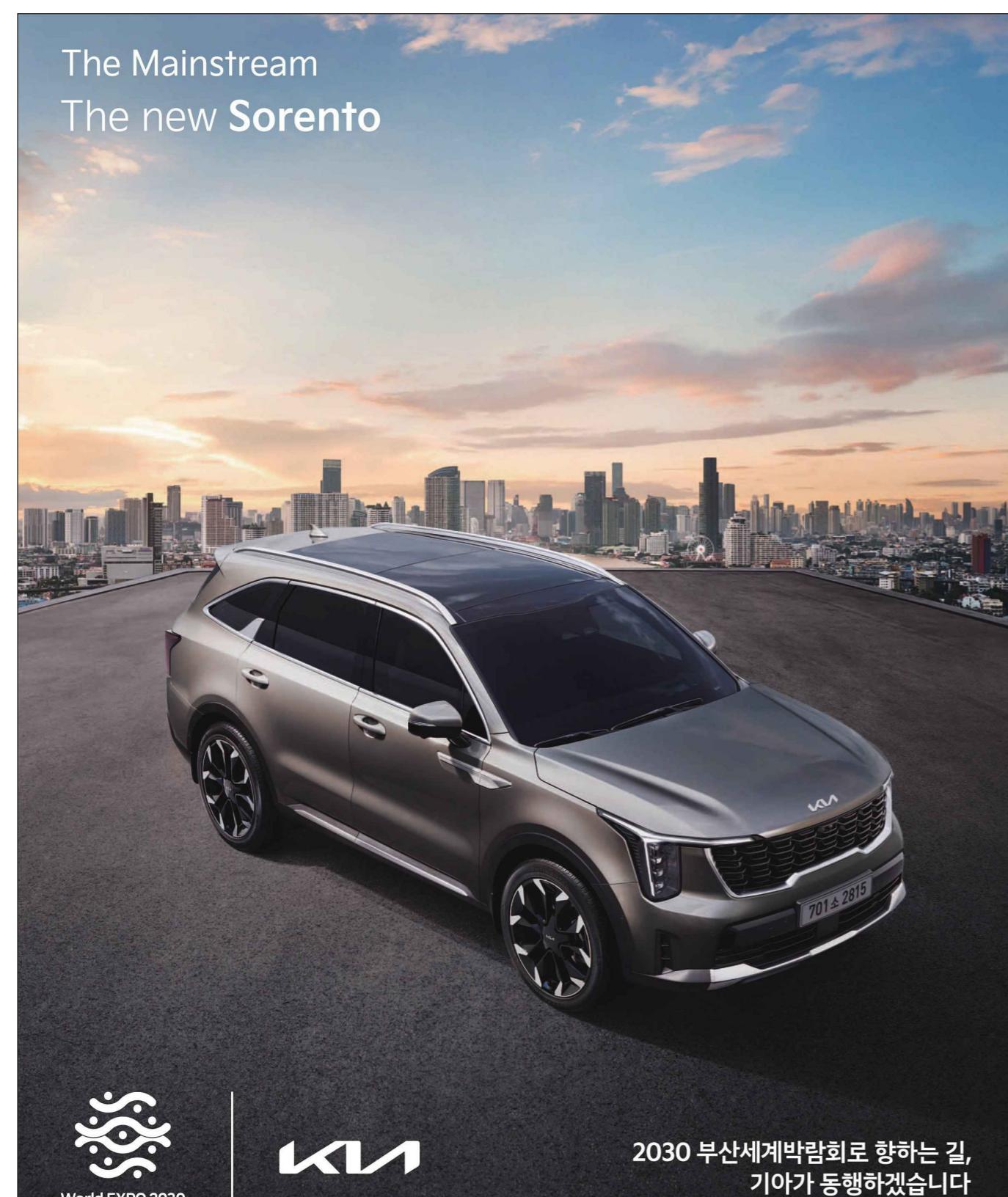
공수처 관계자는 "12월에도 실제로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고발장에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있어 제공하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범죄사실이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을 유 사무총장 측에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조사 시기를 두 달 가까이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이후 이미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수사를 미루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다만 선불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 수사가 동력을 잃을 우려도 있는 만큼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소환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 김호중 기자

The Mainstream The new Sorento



'걸을 때 휴대폰·이어폰 쓰지 말기'

6일부터 보행안전주간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한 '보행안전주간'이 6일부터 12일 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밝혔다.

11일인 보행자의 날을 기념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학술 행사 등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 무단횡단하지 않기 ▲ 우측 보행 ▲ 보행 중 휴대폰·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을 보행 안전 수칙으로 정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KTX 역사, 전통시장, 전국 편의점, 아파트·상가 등을 비롯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과 대구, 부산 등 11개 지역에서는 각 자체 민간기관과 경찰서 등이 함께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벌인다.

아울러 국내외 교통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가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엔 플라 넬기에 겐트시 도시계획실장과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박사 등이 보행자 안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는 행안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 서정미 기자



행안부는 ▲ 무단횡단하지 않기 ▲ 우측 보행 ▲ 보행 중 휴대폰·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을 보행 안전 수칙으로 정하고, 지방

국회의장 지낸 野 6선 박병석, 총선 불출마 선언…“내려놓을 때”

“국회서 할 일 다 해…시대소명 투철한 새 사람이 내 빈자리 맡아야”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6일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6선 의원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나의 빈자리는 시대 소명이 투철하고 균형감각과 열정을 가진 새 사람이 맡아주길 염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의 내 역할은 내려놓을 때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국회 임기인 내년 5월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출마,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했다. 21대 여야를 통틀어 국회 최다선이다.

앞서 민주당에서 중진인 우상호 의원과 초선 오영환 의원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3년 전 고향인 대전에서 출마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라는 간절한 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박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다선 용퇴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 “선수가 출마의 기준이 돼선 안 될 것”이며 “정치도 ‘노·장·청’의 결합이 가능할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의 평가, 장년의 추진력, 노장의 경륜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불출마가 다른 다선이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압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겠지만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민주당은 서울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선 승리가 민주당이 잘해서 한 것인지, 반사이익인지 냉철한 판단을 하

고 빨리 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으로 여당 중진 의원들에게 총선 불출마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대신 총선에서 민주당에 다른 역할을 할 수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민주 개혁진영의 의회 진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의원은 “의장 재임 중에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통과시킨 것이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의장 임기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 고별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친 것은 의사사상 처음이라는 것이 감동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선거제도 개혁의 본격적 물꼬를 트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1당이든 2당이든 다른 한 당 이상과 합의할 때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연합과 반’을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희성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 ‘서울 확장론·공매도 금지’에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기획된 총선용 포퓰리즘 카드’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연이은 정부·여당의 대형 정책 이슈 몰이에 명확한 찬반 입장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해 급조한 정책을 낭발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격 총선 모드로 접어든 국면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과급과 수도권과 중도 총 민심의 향배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여론의 흐름을 신중히 살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선거가 급하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의 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메가시티 서울과 공매도 금지 등

을 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두 정책 모두 절차적으로 매우 졸속이면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련되고 기획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자당이 먼저 요구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선을 전후한 정책 발표 및 시행 시점을 문제 삼는 데 방점을 찍었다.

홍의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뚜렷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데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은 선거 정략적이 아니라는 얘기가 금융 시장에서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매도 한시적 중단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이야기는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며 불법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정별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요구했다.

/ 백동기 기자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도 생각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결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제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 이성윤 기자

대통령실 이달 하순 개편…홍보 이도운 유력·정무 한오섭 거론

시민사회엔 김정수 검토…“인사 쇄신 폭·대상 유동적”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이달 하순부터 수석비서관급 일부를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을 순차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아직 개편 폭과 대상은 유동적이지만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국정 기조에 발맞춘 인적 쇄신이 동시에, 일부 참모들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 출마에 따른 수요와도 맞물린 인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정치인 출신인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차기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의 승진 기용이 유력하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수석은 경기도 분당을에서, 강 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강 수석의 후임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 등이 검토되

고 있다.

김 전 중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으로 일했고, 최근 방위사업청장 인선 때도 후보로 거론됐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을 떠나 내년 총선에서 원래 지역구였던 부산 동래에 출마하기보다 다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도 오르내린다.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정무 업무를 오랫동안 다룬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 실장이 계속 단수로 거론된다.

수석급 참모진 개편 과정에서 황상무 전 KBS 앵커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이달 중순 경기 의정부갑 출마 준비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며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대법원장 후보

자 지명 등 당면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산 수영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으로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수령 이동하고 국제법무비서관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김형우 변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전부터 일부 참모진의 후임을 물색해 왔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조만간 대통령실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수석·비서관들과 지난 3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계기로 어의도에 복귀하려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 부처 관료들, 대통령실 참모진 등이 남아 있어 추가 개편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상훈 사회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된다.

/ 이천우 기자

서울시, TBS 6개월 한시지원 추진 시의회에 폐지조례 연기요청

서울시가 교통방송(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6개월 동안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와 예산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가진 시의회에 TBS 폐지조례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TBS 지원 폐지조례에 따라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그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긴다. 7월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TBS 지원을 위해 편성한 73억원도 전액삭감했다.

이로 인해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은 TBS는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 혁신과 운영 쇄신, 자구책 마련에 매진해왔다.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됐고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했으며 과거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던 진행자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 권정석 기자

Sea & Love

예금 가입으로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예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조성을 위해 수협중앙회 부담으로 연 평잔 순증액의 0.01%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해양수산부 지정 기부처에 출연하는 거치식 예금입니다.

• 이 예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인당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와 함께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년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인터넷뱅킹 www.suhyup-bank.com 고객지원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1515

Sh 수협

보이스피싱 합수단 “108억 가로챈 총책 역대 최장기 징역 35년”

필리핀 거점 ‘민준파’ 범행에 국내 피해자 560명…합수단 “중형 선고에 최선”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560명에게서 약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 B(31)씨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기준의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피해액 26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에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6년 피해액 54억원



108억 쟁진 보이스피싱 주범 필리핀서 송환

의 사건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분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민준파를 조직했다. 조직 이름은 A씨의 가명을 냈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콜센터 직원, 국내 인출채, 국내 환전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 60여명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범죄 수익금인 108억원을 이른바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은 니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민준파 조직원 40명은 검거돼 이 중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명은 수사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진욱 기자

이선균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마약인 줄 몰랐다”

이씨, 마약 투약 혐의 사실상 인정…범행 고의성은 부인



경찰에 재출석하는 이선균

배우 이선균(48)씨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

는 전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과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은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는 진술이다.

앞서 그는 전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 받은 마약을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확인 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 권현준 기자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여자가 왜 머리가 짧아”

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한 20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을 말리려던 50대 손님 C씨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게에 비치돼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하기도 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엄좌와 인대 손상, 귀 부위를 다치고, C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해 아직 완벽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회복되면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은주 기자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인정…“훈육 차원 행위”

조카가 남씨에게 용돈 요구하자 “경호원 보내 작업하겠다” 협박도

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는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날 조사는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들이 전씨가 구속돼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로 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진규 기자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유니세프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많습니다.



매월 30,000원이면
매년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40명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www.unicef.or.kr (02)737-1004



미국-이스라엘 동맹 금가나…“일시 교전중단·전쟁목표 이간”

WSJ “장단기 이해관계 엇갈려”…바이든·네타냐후 모두 비판여론 직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전통적 우방 관계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인도주의적 조치를 위해 교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제안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단번에 거부한 게 상징적 장면이다.

하마스 제거 이후를 두고도 두 나라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동 분쟁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단기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번 전쟁의 종식으로 가는 길이 흐려지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개전 직후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표명한 미국은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이스라엘에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질 구출을 위해 일시적 전투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외과수술식’ 전술을 쓰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지난 달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이 석방된 장소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오른쪽)

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었다고 WSJ에 전했다. 이스라엘은 당시 전투 중단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난민촌 등 민간인 피해 우려가 큰 장소에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것은 그들의 작전이며 표적을 정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그들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공습이 적절한지에 대해 백악관이 입장문 밖에서 알았지만 행정부 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같은 전쟁 전략의 차이는 두 나라의 장기적 목표가 서로 달라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하마스 근절’이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로 간주한다. 반면 미국은 이란·러시아·중국에 대항해 동맹국들을 단결시키려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대규모 전쟁을 피하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물리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고 WSJ은 분석했다.

하마스 제거 이후 가자지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등 주요국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각자 독립국으로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제시한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나온 해법이지만, 극우 민족주의 세력 등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이스라엘 극우파 일부는 장기적으로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주민들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전

쟁 이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두 국가 해법’이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모멘텀을 만들려는 시도의 일부라고 보도했다.

FT는 “4주째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려는 약속으로 아랍권에 고조되는 분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나라 지도자 모두 국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은 똑같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특히 젊은 유권자와 무슬림, 아랍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민주당 상원 의원 20여명은 지난달 27일 가자지구에 연료를 공급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민주당 의원은 “현재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률은 용납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스라엘이 접근방식을 즉시 재고하고 신중하고 비례적인 대테러 군사작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전 이전 사법부 무력화 시도로 이미 정치적 위기를 맞은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에 책임을 지기는 커녕 군 정보당국과 신베트(ISA) 등 안보 당국을 탓했다가 거센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 장희진 기자



홍콩에서 중국 국기 흔드는 사람들

中, 美의회 ‘홍콩 제재 확대 법안’에 “돌로 제 발등 찍을 것”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홍콩 관리와 법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홍콩 제재 법안’을 발의하자 중국과 홍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관공실 대변인은 5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의 오만하고 터무니없는 행동은 그들이 시대착오적이고 폐권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음을 반영한다”며 “그들의 졸렬한 행동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홍콩 관리와 사법부의 결의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외부 개입에 대한 홍콩 사회의 적개심을 자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홍콩국가보안법을 전면 적이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홍콩 관리와 사법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이 대세를 분명하게 인식해 ‘남떠나지에서 말고 빠져나가야 한다’며 권하며 그렇지 않으면 돌로 자기 발등을 찍을 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에 빠져야 정신을 차린다는 뜻의 현애마는 주로 중국이 다른 나라에 강력한 보복을 경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크리스 텅 홍콩 보안국장도 이날 한 방송에서 미국 의회 법안 발의를 겨냥해 “흑사회의 행동과 같다”고 비판했다. 흑사회는 중국 최대 폭력조직이다.

그는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홍콩의 독립적인 사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콩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자유와 사법 독립을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제로섬 개념으로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있다”며 “홍콩과 중국의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콩보안법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의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 대변인도 이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오찬영 기자

독일 여성관에게 ‘불편한 키스 논란’ 크로아티아 장관 사과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에게 키스하는 라드만 크로아티아 외무장관

유럽연합(EU) 회의에서 독일의 여성 외무장관에게 느닷없이 키스해 논란을 일으킨 크로아티아 외무장관이 사과했다고 dpa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르단 그를리치 라드만 크로아티아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에 “어색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며 “누군가 나쁜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그렇

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65세의 라드만 장관은 전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단체 사진 촬영 중 옆에 선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에게 약수한 뒤 앞으로 몸을 기울여 볼에 키스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갑작스러운 키스에 당황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짓으며 곧바로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크로아티아 내 여성 단체들은 라드만 장관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난했다. 일부 크로아티아 언론매체에서도 라드만 장관이 베어보크 장관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난처하게 만들고 자국에 수치심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크로아티아 첫 여성 총리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임한 야드란카 코소르는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라드만 장관은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회의장에 뒤늦게 도착해 단체 사진 촬영할 때 비로소 베어보크 장관과 인사를 나눴다며 반기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항상 서로 따뜻하게 인사한다”며 이번 키스 논란에 대해서는 “동료 간의 따뜻한 인간적인 교류”라고 주장했다.

/ 조유진 기자

‘아르헨의 트럼프’ 대선가도 최대 난적은 BTS·스위프트 팬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자유전진당)가 팝스타 팬덤이라는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밀레이가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 분노한 테일러 스위프트와 BTS 팬들을 우선 설득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일부 팬들은 밀레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팬 10명은 지난달 밀레이 후보의 결선 진출이 확정되자 ‘자유전진에 반대

하는 스위프티스’라는 단체를 만들고 밀레이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단체는 “테일러가 자신의 나라에서 우파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바치는 걸 보고 들으면서도 싸우지 않을 수 없다”며 “테일러가 밀하듯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2020년 다큐멘터리에서 커리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최근 몇 주 동안 아르헨티나에 널리 퍼졌다. ‘자유전진에 반대하는 스위프티스’는 게시물에 ‘밀레이=트럼프’라고 적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투표를 열흘 앞둔 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디 에리스 투어’ 공연을 재개한다.

‘자유전진에 반대하는 스위프티스’에서 활동하는 마카레나는 팬 140명이 웨츠 앤 그룹을 만들어 콘서트장 바깥에 밀레이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붙일 계획이며 다른 지역의 소규모 그룹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BTS 팬심은 밀레이의 러닝 메이트인 빅토리아 비야루엘 부통령 후보가 건드렸다.

/ 최규식 기자

KB 금융그룹 | 국민은행·KB국민카드·KB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Pay로 결제 되나요?

될 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심의필 제 230609-02066-ADP(23.06.09)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일상을 플랫폼하다



LG유플러스 4대 플랫폼

초개인화된 맞춤형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_너겟

축구, 야구, 골프 등 모든 스포츠 팬을 위한
놀이 플랫폼_스포키

아이의 배움습관을 키우는 국내 최초 맞춤 교육 서비스,
성장케어 플랫폼_아이들나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AI친구와 실감나게 체험하며 학습하는
Web 3.0 플랫폼_키즈토피아

LG유플러스의 4대 플랫폼이
모두의 일상을 원더풀하게 바꿉니다

 LG U+

삼성 일가,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2.6조원 매각

홍라희·이부진·이서현 모녀,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천억원 어치를 처분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천993억원이다.

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천450억원, 이부진 사장 1천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천640억원이다.

또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천993억원이다.

이번에 세 사람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천754억원 규모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212개 韓기업 참여...“역대 최대”

산업부 통상차관보, 中 상무부 부부장 면담...‘흑연 수출통제’ 우려 전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에 212개 한국 기업이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CIIE는 중국이 대외 개방과 수입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다.

설립 첫 해인 2018년과 이듬해인 2019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했고, 2020~2022년에는 시 주석이 영상 축사를 보냈다.

CIIE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영·민



영 기업들이 구매 사절단으로 참여한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여

겨진다.

올해 박람회에는 130여개국에서 3천 400여개 기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별로는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다.

한국 정부 대표는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맡았다.

양 차관보는 이날 리페이(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고위급 회담을 열어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양 차관보는 특히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흑연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 박현민 기자



경총 “주요 기업 10곳 중 6곳 재택근무…축소·중단 늘어”

코로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대기업 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10곳 가운데 6곳 정도가 이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 상위 50대 기업(공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재택근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31곳 중 58.1%가 ‘현재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 재택근무 시행기업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현재 ‘재택근무 미시행’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1.9%였다. ‘코로나19 이후 시행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38.7%,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3.2%였다.

재택근무를 운영 중이라고 해도 과거 코로나19 시기에 비해 그 규모는 감소했다.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 가운데 61.9%는 ‘필요 인원을 선별하거나 개별 신청’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으며, 재택근로자를 일정 비

율 정해놓고 부서·팀 단위로 운영하는 ‘교대 순환형’과 ‘부서별 자율 운영’ 방식을 택했다는 기업은 각각 19.0%였다. 재택근무를 축소 또는 중단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기업도 절반가량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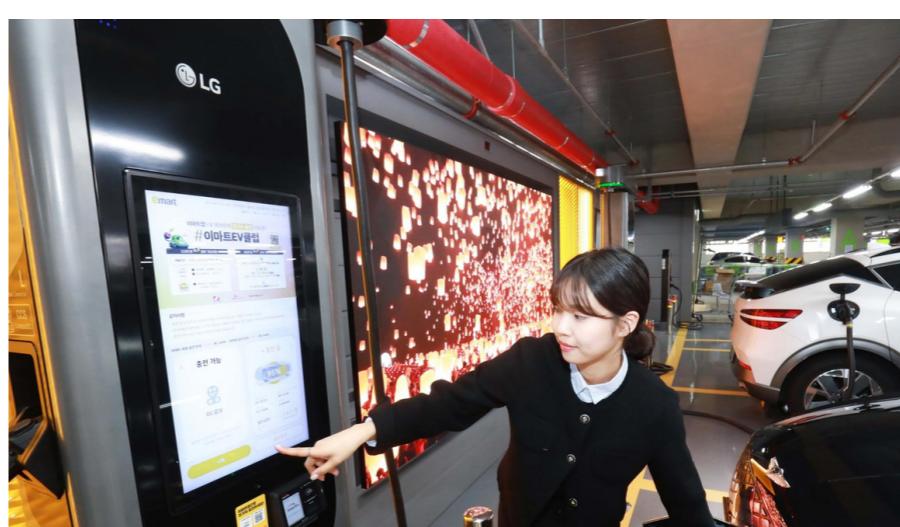
‘반대가 거의 없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지만 ‘일정 부분 반대가 있었지만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한 기업은 36.7%, ‘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한 기업은 10.0%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3.3%였다.

이밖에 재택근무 확대 전망에 대해 응답 기업의 64.5%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확대될 것이나 제한적’(25.8%), ‘향후에도 지속 활용·확산’(9.7%) 등의 순이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재택근무가 대면 근무를 대체하기보다는 업종, 직무, 근로자 여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택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백서연 기자

LG전자, 이마트 매장에 전기차 충전 솔루션 공급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LG전자는 충전기와 연동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관제 솔루션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이마트는 전국 매장 충전기 현황을 한눈에 보고 원격 관리할 수 있다.

고객은 관제 솔루션과 연동된 이마트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기차 주차 공간을 찾고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마트 동탄점에서는 대형 LED 광고 사이니지 및 광고 플랫폼을 제공해 충전소 사업자에게 부가 사업 기회도 제공한다.

LG전자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기 전문 업체 애플망고를 인수하며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서흥구 LG전자 EV충전사업담당 상무는 “전기차 충전 통합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다양한 공간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병희 기자

‘홈술’ 인기 맥주 1위는 ‘카스’…테라-아사히-켈리 순

4분기 매출 순위, 가격 인상·신제품 출시 등 ‘변수’

올해 3분기 국내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맥주는 오비맥주의 카스로 나타났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7~9월 카스의 소매점 매출은 4천281억2천400만원으로 맥주 브랜드 중 가장 많았다.

카스의 소매점 점유율은 9월 말 기준 37.89%로 작년 동기(38.89%)와 같은 수준이었다.

2위는 하이트진로의 테라, 3위는 롯데아사히주류의 아사히가 각각 차지했다. 테라의 소매점 매출은 1천205억6천500만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2위를 유지했으나 점유율은 10.67%로 3.86%포인트 떨어졌다.

아사히는 3분기에 841억1천800만원(점유율 7.44%)의 매출을 거뒀다. 아사히 소매점 매출 순위는 작년 동기에 10위권 밖에 있었으나 지난 3월 9위를 기록하고서 7월에 3위까지 높아졌다.

하이트진로가 지난 4월 출시한 켈리 매출이 752억700만원(점유율 6.66%)으로 4위에 올랐고, 같은 회사의 필라이트 매출 633억8천500만원과 점유율 5.61%로 5위를 차지했다.

필라이트는 켈리 출시 전인 작년 동기만 해도 매출 순위 3위에서 이번에 5위로 밀렸다. 주류업계는 맥주 브랜드 간 경쟁이 이달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21일 클라우드 라거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클라우드 라거 신제품은 알코올 도수 4.5도로 Z세대를 겨냥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 불거진 칭다오 맥주의 ‘위생 논란’도 매출 순위 변동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중국 칭다오 맥주 현지 생산 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에 방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국내에서 이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진 기자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동네엔 천사가 산다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동네에 몰래 찾아온 천사,
선한가게 사장님

복지센터에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대림동【봉여 빵집】

임신부에게 치 한잔을 대접하고
고덕동【카페 제이】

노상마비 복지관에 세탁으로 재능 기부를.
방화동【미세탁소】

사장님님이 나눠준 건
음식이나 세탁물이 아닌
따뜻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금융그룹이 우리동네 선한가게
천사 사장님들을 지원합니다

• 노후된 가게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 특별금융지원 및 경영 컨설팅 제공
• 온라인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통한 가게 홍보
• 경사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우리는 믿습니다
산한 마음은 또 다른 산한 마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선한마음이 퍼질지도’에서
우리동네 선한가게를 확인해보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동네 선한가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은행권 최초」

밤낮없는 금융사기로부터 빈틈없는 모니터링 시작



금융사기예방팀과 빅데이터, AI가 만나

24시간 금융사기 사전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수집 확대

빅데이터와 AI 활용 의심거래 추출 &
이용채널별 의심거래 정보 활용



단말정보 범위 확대

모바일 단말 위협정보 수집 &
PC 단말정보 수집



대외기관 사고 공유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 등
사고데이터 공유로 의심거래 추출 세분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BTS남산·한강불빛…서울시 인스타 팔로워 쑥쑥 늘어난 비결

‘글로벌 탑10 도시’ 1위…시민 수요 반영하고 릴스↑·감각적 영상·시의성



남산서울타워 미디어파사드 영상(왼쪽)과 한강 불빛공연 영상(오른쪽)

서울시의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45만명을 돌파하며 ‘매력 특별시 서울’의 점점을 넓히는 소통 채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 공식 인스타그램

에서도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 중이다.

시는 지속적인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최근 여러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중 대세로 떠오른 인스타그램에 최

불빛공연’, ‘전지적 서울시점 서울페스타편: 하늘에서 본 K-POP 콘서트’, ‘한강에 등장한 대형 흑등고래! K-콘텐츠 페스티벌 시작!!’, ‘워터파크 오픈 앞둔 실시간 #광화문 #서울썸머비치’ 등도 화제를 모았다.

서울시의 콘텐츠는 입소문(바이럴)을 타며 시민이 즐겨 찾는 미디어 채널에서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한강 불빛 공연 - 드론라이트쇼’ 영상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팬션매거진 ‘싱글즈’(242만)와 ‘아이즈매거진’(66만), 여행매거진 ‘트립고양’(41만) 등에서 확산했다. 8월에 안내한 광화문책마당 야외마당 재개장 안내 콘텐츠는 여행 정보를 전달하는 ‘서울여행’(61만), ‘daytripkorea’(45만) 등의 채널에서 공유됐다.

이 밖에도 ‘줍깅’(줍다+조깅,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일)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옮겨 이목을 끌었다. 드론을 활용해 처음 공개한 경복궁 아경 등 서울 도심을 찍은 ‘전지적 서울 시점’ 등 다양한 촬영 기법을 적용한 영상, 레트로 감성의 감각적인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불꽃쇼

6~8일 부산서 ‘인베스트 코리아 2023’ 외투기업 투자유치 지원

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주관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3’ 행사가 오는 6~8일 부산 베스코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다고 산업부가 5일 밝혔다.

올해 19회를 맞는 이 행사는 국가 차원에서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처음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 첨단산업 우수성과 공급망 관점의 글로벌 투자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외국인 투자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FEZ), 국내 선도 기업, 외신 등 관계자 1천500여명이 참가한다.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미국계 사모펀드 EMP밸스타, SES, ASM메탈스 등 120여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진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 투자처를 찾는다.

산업부는 올해 행사를 범정부 투자유치 기업설명(IR) 행사로 개편했다고 강조 했다. 행사 기간 투자신고식, 인베스트 코리아 콘퍼런스, 자체 태운홀미팅, 투자유치 상담회, 스타트업 콘퍼런스, 해외투자진출 및 인수·합병(M&A) 설명회, 한·베트남 경제협력 포럼, 외투기업 채용설명회, 외신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는 7일 열리는 인베스트 코리아 콘퍼런스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투자가, 국내기업, 주한상공회의소 등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다. 콘퍼런스 기조연설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옴카람 나라마수 박사가 맡아 ‘딥테크 협업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속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과 삼성전자 송재혁 CTO, 두산에너지리티 정연인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며, 르노, 유미코아, 램리서치, 에퀴노르 등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가 ‘한국의 투자 매력과 강점’에 대해 설명한다.

/ 임형준 기자

보라색 물든 남산서울타워·전지적시점 서울 등 인기…“정보에 재미·감동”

팔로워 수가 올해 10월 기준 45만4천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14년 6월 처음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어 2017년 구독자 10만명을 넘겼으며, 7년 만인 올해 9월 처음으로 45만명 팔로워 수를 달성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2022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글로벌 탑10 도시에 포함된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로, 7위인 서울의 팔로워는 1위 런던(24만명)의 약 19배에 이른다. 문화예술의 도시 파리(33.3만명)도 능가하는 수치다.

국내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중

적화된 솟폼 영상 콘텐츠인 ‘릴스’ 게시물을 늘리고 시민 요구에 부합한 정보를 전달한 점을꼽았다.

시는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콘텐츠 발행 횟수를 지난 해(1~10월) 4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94건으로 약 2배로 늘렸다. 올 10월 기준으로 서울시 인스타그램 내 릴스

게시물의 총 조회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배 증가한 1천127만회를 돌파했다. 올해 조회수 1~5위를 차지한 콘텐츠 모두 릴스였다. 1위는 6월 ‘보라빛 남산서울타워 미디어 파사드’(133만8천회 조회)로, BTS 페스티벌 앞두고 실시간 현장 풍경을 담아 큰 호응을 얻었다. ‘밤 하늘을 수놓은 1천대의 드론! 금요일에 만나요 #한강

콘텐츠도 폭넓은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소재 선정부터 기획, 게시까지 뉴미디어 흥보의 전 과정에 미디어채널팀에 자율성을 부여해 공공기관의 전형적 스타일인 ‘딱딱하고 경직한 이미지’를 벗은 것도 흥행몰이에 한몫했다고 시는 자평했다.

최원석 서울시 흥보기획관은 “주말에 어디에 가야 할지 고민될 때, 서울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나 축제 소식이 궁금할 때 서울시 인스타그램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시정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미와 감동도 나누는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봉화 광산사고 생활 광부 박정하씨 “경북으로 이사 오고 싶다”

사고 1년 맞아 경북도서 조청 간담회

경북도는 지난해 봉화군 광산에서 고립돼 221시간 만에 생환한 광부 박정하씨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봉화 광산 사고 생환 1주년을 기념해 이철우 도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1년 만에 재회한 이들은 당시 일궈낸 기적을 회상하며 서로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강원도에 사는 박 씨는 “1년 전 생환의 기쁨을 느끼며 오늘은 생일처럼 여겨 왔다”라며 “경북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씨 가족을 비롯해 당시 캠도에 고립됐던 광부 7명 중 일부도 함께해 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경북도는 전했다. 봉화 광산 사고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2일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광산 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봉화 광산 생활 광부 박정하(오른쪽)씨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으로 수 시간 만에 빠져나왔으나, 박 씨 등 2명은 지하 190m에 10일 동안 고립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봉화 광산 사고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2일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광산 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가 적극 견의한 캠내 시추할 수 있는 구호용 시추기, 고심도 시추공 카메라 등 구호 장비가 확보됐다.

생활 광부 박 씨 요청에 따라 5인 이상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생존 박스와 무선통신 시설도 캠내에 보급될 예정이다.

/ 정유찬 기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화, 6일부터 강원 순회 투어



울 광장을 출발, 부산, 세종, 제주, 광주를 찾는 전국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오는 6일에는 강원도청에 임성, 도내 18개 시군 순회 투어를 시작한다.

강원도와 조직위는 이날 오후 도청 분수광장에서 성화 맞이 및 투어 안전 기원 행사를 열고 다음 달 28일까지 18개 학교에서 성화 점화 및 문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에는 도내 소외 계층을 찾아 성화 체험을 하는 특별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구촌 80여 개국 청소년 선수 1천900여명과 대회 관계자 등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강릉, 평창, 횡성, 정선 등 강원 도내 4곳에서 열린다.

/ 김유정 기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성화가 오는 6일부터 강원 지역 순회 투어를 시작한다.

5일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한 성화는 같은 달 11일 서

Samsung Financial Networks

당신의 경험이 최고의 경력

삼성생명 GFC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움직여 본 경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 본 경험 위기에 맞서 해쳐나갔던 경험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의 경험으로 답하세요

삼성생명 GFC에 지원하세요

QR 코드

삼성생명 GFC(Group Financial Consultant)는 더넓은 커리어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로 기업부지증권을 증권화하고 입지원보증/은퇴설계를 제안하는 기업보험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본 광고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팅 광고입니다.

준법감사필 23-2320호 (브랜드광고파트, 2023.10.17-2024.10.16)

“새만금 예산 정상화하라”…전북도민들 7일 상경 궐기대회

전북 도민과 출향인들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 대책회의’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 전국호남

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한다.

도민과 출향인 등 5천여명이 참여하며 전북도의회 유튜브 채널 ‘어썸전북’에서 생중계한다.

참석자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와 대회 파행에 따른 ‘전북 희생양’ 만들기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 반영액 6천626억원 중 78%를 삭감한 1천479억원만 반영해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석정 전북인비상대책회의 상임대표는 “이번 총궐기 대회는 빼앗긴 전북의 땅을 되찾고 전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이라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권정식 기자

인천시, 내년부터 사망참전용사 배우자에 월 5만원 수당 지급



인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1만8천여명의 배우자 가운데 인천에 주민등록하고 있는 6천565명이다.

시는 올해 보훈지청에서 사망참전유공자 명단을 제공받아 일선 군·구를 통해 배우자의 생존과 인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연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수당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수당 신설에 연간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광역단체 중에는 대전·충남·전북이 월 2만~8만원의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2만3천 896명에게 참전유공자명예수당(월 10만원)·전몰군경유가족수당(월 7만원)·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월 7만원) 등 총 219억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보훈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수민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단체 현혈

“1995년부터 1만여명 참여”

현대삼호중공업이 30년 가까이 헌혈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5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현혈 행사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독감 유행 등 여파로 혈액 공급이 여의찮은 사정을 고려해 단체 현혈을 진행했다.

임직원 350여명이 올해 상·하반기 헌혈에 참여했으며 1995년부터 시작된 헌혈 인원은 누적 1만여명에 달한다고 사측은 전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앞으로 도 꾸준히 전통을 이어가 지역 사회 생명나눔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박소희 기자



박상혁·김주영 의원, 김포 서울편입 관련 기자회견

野 김포의원들 “서울 편입 추진 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구 의원들은 5일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 추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와 여당 내 관련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에게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불어보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을 처음 제기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6일 만인 이날 입장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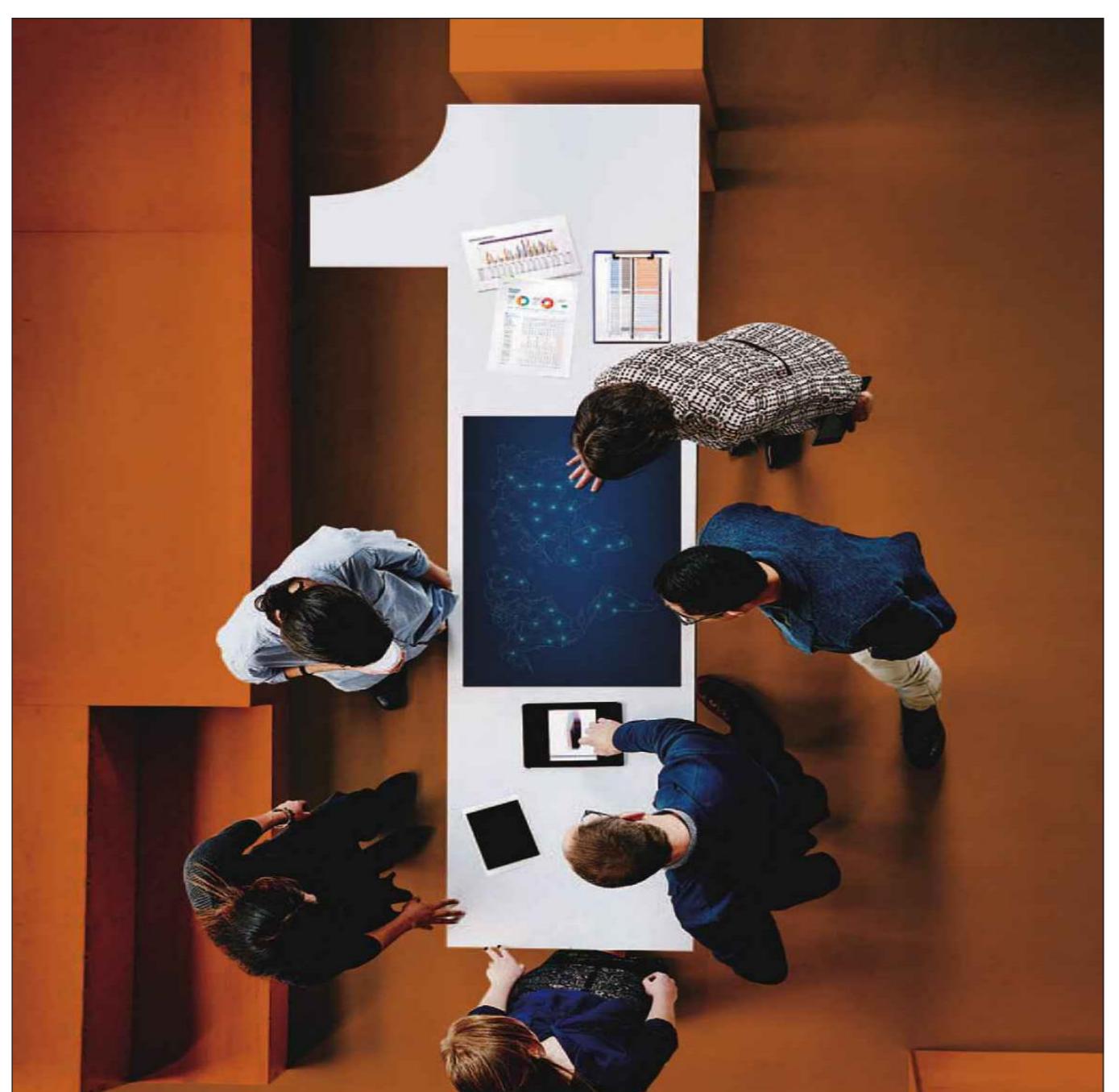
이들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도 수천억 원 줄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이 누리던 도농복합도시

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런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사전 충분한 숙의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서 재보궐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김포가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열려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대표의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 김포 시민들은 ‘교통이 먼저’, ‘서울 쓰레기 만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교통·여건·개선 및 기피 시설 이전 불가 요구를 내놨다.

교통과 관련해선 김포 북부까지의 지하철 5·9호선 연장 확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 예산의 이번 예산안 반영 등을 요구했고, GTX-D 노선의 강남 연결 조기 확정 및 김포시민의 도강세인 일산 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등도 촉구했다.

/ 신정현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증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합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1%,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자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KT, 도심항공교통 AI 교통관리 기술 ‘스카이아이즈’ 공개

KT는 도심항공교통(UAM)을 위한 인공지능(AI) 교통관리 기술 ‘스카이아이즈’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스카이아이즈는 디지털 트윈(가상모형) 기술로 운항 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운항 스케줄 관리를 돋는다. 끊김이 없는 통신으로 도심항공교통 기체의 비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비행 상황의 변화에 따른 동적 교통관리도 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전용 5세대 이동통신(5G) 항공망 기술 ‘스카이링크’도 함께 공개했다. 3차원 서비스 범위(커버리지) 설계 기술과 가상화 기술로 단일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나눈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 특화 안테나 기술 등이 적용됐다.

KT는 지난 3일 전남 고흥군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도심항공교통 비행 시연 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



한항공, 현대자동차, 현대건설과 전시 부스를 꾸려 관련 기술을 소개했다. 앞서 KT는 2021년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과 도심항공교통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에 참여한다.

김봉기 KT 융합기술원 컨버전스연구소장(상무)은 “도심항공교통 교통관리 사업자로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

/ 윤형규 기자

파주 대표농산물 ‘장단콩축제’ 24일 임진각서 열린다



경기 파주시는 제27회 장단콩 축제를 24일부터 사흘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웰빙 명품, 파주 장단콩 세상’이라는 주제로 임진각 광장과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리는 장단콩 축제는 장단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향토 먹거리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장단콩과 관련된 알찬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 전시관과 콩 요리 대회를 통해 장단콩을 알리는 ‘알콩(볼거리)’ ▲ 가

공 음식 먹거리 마당에서 친구·가족과 함께 장단콩을 맛보는 ‘달콩(먹거리)’ ▲ 콩 매주를 만들고 콩 타작을 하는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놀콩(놀거리)’ ▲ 농특산물·가공품 판매장, 재래장터에서 농업인이 직접 장단콩을 판매하는 ‘살콩(살거리)’을 마련했다.

장단콩을 활용한 꼬마 메주 만들기, 콩 타작 체험, 소원꽃이, 마술쇼, 버블쇼, 거리공연도 진행된다. 축제장에서는 서리태와 백태를 비롯한 다양한 장단콩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장단콩 체험 마을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두부와 청국장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축제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과 감악산 기슭 등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장단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다.

올해 축제에서는 총 150t의 콩이 거래될 계획이다. / 신재일 기자

SAMSUNG

Galaxy Watch6 Classic Golf Edition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위해 연출된 화면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KT '2패 후 3연승' 마법으로 2년 만에 KS 진출…'LG 나와라'

PO 5차전서 대타 김민혁 동점 2타점 2루타…6회 박병호 병살타로 결승점



축하받는 김민혁

프로야구 kt wiz가 2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통산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kt는 5일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PO) 최종 5차전에서 NC 다이노스를 3-2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잡실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PO 1·2차전을 내리 패해 벼랑 끝에 몰렸던 kt는 3연승의 '역싸이'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는 저력을 뽐냈다.

역대 5전 3승제로 벌어진 PO에서 2패 후 3연승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팀은 1996년 현대 유니콘스, 2009년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에 이어 kt가 세 번

째다. kt는 정규리그 1위로 2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LG 트윈스와 7일부터 7전 4승제 한국시리즈에서 패권을 다퉐다. 2021년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한 kt는 2년 만에 다시 정상 등정을 노리며, LG는 1994년 이래 29년 만 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을 꿈꾼다.

두 팀의 1차전은 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정규리그 4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NC는 와일드카드 결정전(두산), 준플레이오프(SSG)를 거침없이 통과한 뒤 PO에서도 2연승으로 한국시리즈를 눈앞에 뒀다가 3연패를 당해 우승을 향한 여정을 마감했다.

KBO리그 막내로 포스트시즌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NC(9구단)와 kt(10구단)는 2승씩 주고받는 접전으로 PO 열기를 끌어 올리더니 최종전에서도 일진일퇴 공방전으로 손에 땀을 쥐는 일전을 펼쳤다.

PO 5경기에 모두 등판해 7이닝을 던지고 1승 1홀드, 평균자책점 0의 빼어난 성적을 남긴 kt 손동현은 야구기자회 투표에서 71표 중 39표(득표율 55%)를 횟쓸어 PO 최우수선수(MVP)로 뽑혀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 흥순철 기자

성유진, 에쓰오일 대회서 행운의 우승…이예원 대상 확정

폭우로 4라운드 취소 3R 대회로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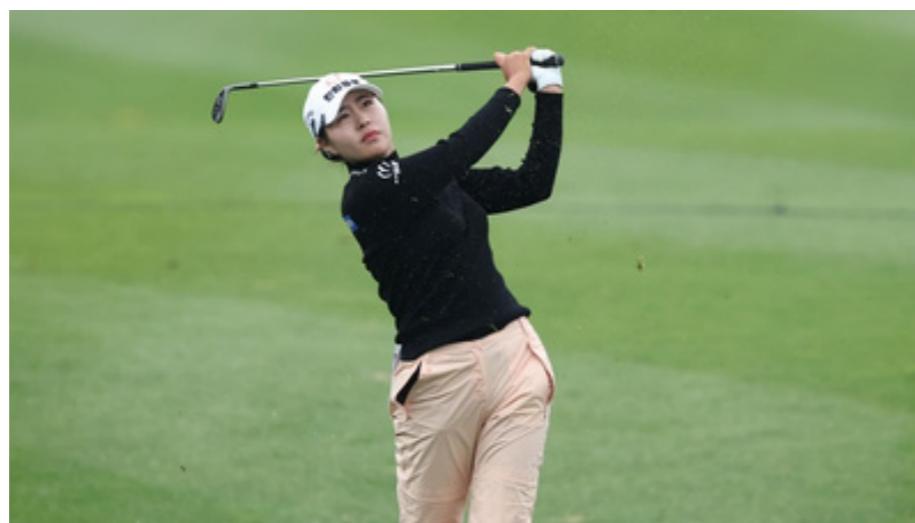
성유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에쓰오일 챔피언십에서 폭우 덕에 행운의 우승을 차지했다.

5일 제주시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는 폭우가 쏟아져 두차례나 중단된 끝에 경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대회 규정에 따라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성유진이 12언더파 204타로 우승했다.

성유진은 지난 5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 이후 시즌 두 번째이자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억6천200만원이다.

1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성유진은 1번홀(파5)에서 3퍼트로 보기 를 적어낸 뒤 4번홀(파4)에서는 두 번째 샷을 물에 빠뜨려 벌타를 받은 뒤 더블보기로 흘러웃했다.

이후 보기 3개와 버디 1개로 전반에만



에쓰오일 챔피언십에서 행운의 우승을 차지한 성유진

5타를 잃고 우승권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성유진에게 폭우가 행운이었다.

경기 시작부터 내리던 비는 폭우로 바뀌었고 그린 위에 물이 고였다. 이날 경기는 오전 11시 45분 경기가 중단됐다 30분 후 재개됐다. 하지만 오후 2시 9분 다시 경기가 중단되고 비가 그치지 않자 대회 조직위원회는 3라운드 성적으로 대회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보기 3개와 버디 1개로 전반에만

이예원은 대상 포인트 42점을 더한 651점을 쌓아 남은 1개 대회 성적과 관계 없이 임진희(대상 포인트 558점)를 따돌리고 대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대상 포인트 2위 임진희는 공동 11위(8언더파 208타)로 대회를 끝내 역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대상 포인트는 대회 최종 순위 상위 10위 이내 선수에게만 준다.

/ 권순호 기자

신진서, 47개월 연속 바둑랭킹 1위…AG 금 대표팀, 1~5위 석권



지난달 끝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AG)에서 바둑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대표선수들이 한국 랭킹 1~5위를 석권했다. 한국기원이 5일 발표한 11월 랭킹에 따르면 신진서 9단은 랭킹 점수 1만410점을 기록, 47개월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지난달 아시안게임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는 등 8승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진서는 오는 15일 개막하는 2023 삼성화재배 월드마스터스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신진서와 함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박정환·변상일·신민준·김명훈 9단은 순위변동 없이 랭킹 2~5위 자리를 유지했다.

/ 흥지민 기자



우리은행 김단비의 슛

'김단비 맹활약' 여자농구 우리은행, 개막전서 연장 끝 BNK 격파

여자프로농구 '통합 챔피언' 아산 우리은행이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상대인 부산 BNK를 어렵게 따돌리고 새로운 시즌을 승리로 출발했다.

우리은행은 5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우리은행 우리WON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공식 개막전 흥

경기에서 BNK를 연장전 끝에 74-70으로 물리쳤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을 석권하며 11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과 10번째 통합우승을 달성한 우리은행은 챔프전 상대였던 BNK와의 '리턴 매치'를 잡으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와 챔피언결정전 준우승 등 2019년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냈으나 챔프전에서 우리은행에 3연패를 당하면서 돌아섰던 BNK는 이번에도 우리은행을 넘지 못하고 시즌 첫 경기 패배를 떠안았다.

1쿼터 박지현이 7점 4리바운드, 김단비가 6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위력을 발휘한 우리은행이 20-16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BNK는 안혜지와 이소희의 연속 3점포에 힘입어 2쿼터 2분 40초를 남기고

31-31로 균형을 맞췄으나 우리은행이 유승희와 박지현의 연이은 골밑 슛으로 응수하면서 전반을 35-31로 앞선 채 마쳤다.

엎치락뒤치락한 3쿼터를 마쳤을 때도 우리은행이 46-44로 간발의 우위를 지켰다.

/ 최준용 기자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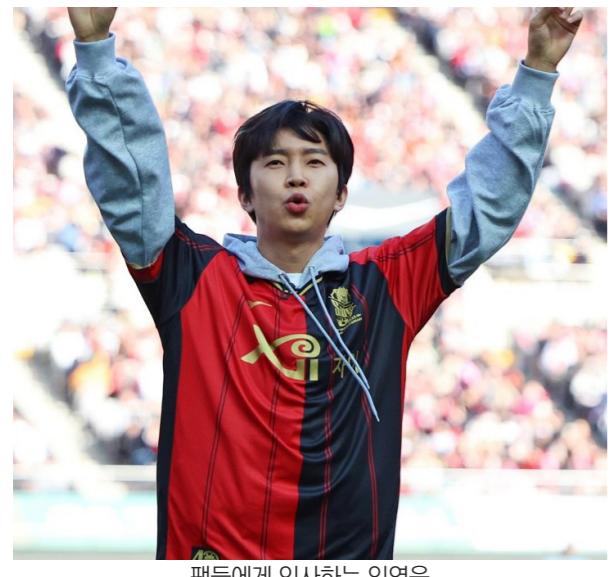
친환경 에너지로 환경과 사회에 가치를 더하다

그린에너지 Provider로 도약하는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그린으로 플렉스

임영웅, 내년 5월 '상암벌' 서울월드컵경기장서 단독 콘서트

국내 최대 규모 경기장…싸이·잼버리 콘서트 등 열려



팬들에게 인사하는 임영웅

가수 임영웅이 내년 5월 25~26일 서울 마포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임영웅은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투어 '아임 히어로'(IM HERO) 서울 마지막 공연에서 이 같은 계획을 깜짝 공개했다.

임영웅은 "꿈만 같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다"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대가 된다. 그날까지 건강히 계시라고"고 말했다. 또 "여러분과 그날 신나게 한 번 놀아보겠다"고 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공사에 들어가 현재 행사 개최 불가능한 잠실올림픽주경기장보다 한 단계 큰 규모로 여겨지는 공연장이다.

솔로 가수로는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의 전 세계적인 히트에 힘입어 월드스타로 부상한 이듬해인 지난 2013년 이곳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바 있다. 최근에는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이곳에서 개최돼 아이브와 뉴진스 같은 K팝 톱스타들이 전 세계 팬을 맞기도 했다.

임영웅이 이곳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것은 그의 인기와 관객 동원력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가요계 자타공인 '축구 마니아'인 임영웅은 올해 4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시축도 한 인연이 있다. 당시 그의 팬 4만5천명이 몰려들면서 유료 관객 수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 김희찬 기자

공연에 예능까지 종횡무진…원조 디바들의 귀환

"소비 주체 된 중장년의 힘"…'재탄생' 주목한 프로그램도 일조



예능 '골든걸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고음, 좌중을 압도하는 여유로운 몸짓과 섬세한 표현력.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공개된 KBS 2TV 음악 예능 '골든걸스' 1·2화에서 원조 디바 4인이 펼친 노련한 무대는 그들을 수식하는 수많은 타이틀도 무색할 정도였다.

가수 신효범, 박미경, 인순이, 이은미는 '요즘 노래'를 그들만의 색으로 풀어내는 능숙함으로 음악에 대한 갈증을 단숨에 해소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최근 가요계에서는 이들처럼 1990년대 무렵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스타들이 기대 이상의 인기를 누리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연말 콘서트뿐 아니라 음원 발매, 예능 출연까지 그야말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유효기간' 없이 얼굴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수년 만에 성사된 단독 공연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김완선은 이달 18일 서울, 12월 16일 부산에서 단독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1986년 '오늘밤'으로 데뷔한 김완선은 '리듬 속의 그 춤을', '빼어로는 우릴 보고 웃지' 등으로 맨싱くん 반열에 올랐다. 그간 여러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기도 했지만

단독 콘서트를 여는 건 약 5년 만이다.

연기 활동을 위주로 존재감을 드러내 왔던 임영화도 다음 달 9~10일 서울, 23일 대구, 31일 부산에서 무려 24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그는 1990년대 '배반의 장미', '초대', '포이즌', '페스티벌' 등 히트곡을 남기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최근까지도 무대에 서는 일은 드물었다.

독보적 음색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어온 가수 이소라 역시 데뷔 3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로 4년 만에 팬들을 찾는다. 이 밖에 데뷔 20주년을 맞은 빅마마, 발라드 가수 린과 거미 등 2000년대를 훑은 디바들도 12월 단독 공연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요계에서는 원조 디바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난 배경으로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중장년 소비층의 지지를 꼽는다.

이소라는 예매 개시 1분 만에 연말 콘서트 티켓 매진을 기록하며 탄탄한 팬층을 과시했다.

이효리가 지난달 공개한 6년 만의 신곡 '후디에 반바지'는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차트 '톱 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구매력 높은 중장년 세대가 가요계 소비 주체로 떠올랐고, 이들이 폭넓은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수들의 유효기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양희진 기자



2PM 이준호, 스페셜 싱글 '캔 아이' 발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는 그룹 2PM(투피엠)의 이준호가 3일 오후 6시 스페셜 싱글 '캔 아이'(Can I) 한국어 버전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캔 아이'는 세련된 분위기의 미디엄 템포 알앤비(R&B)곡으로, 이준호의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는 보컬이 특징이다.

이준호는 지난달 대만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마카오, 필리핀 마닐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방콕을 도는 단독 팬미팅 투어를 진행 중이다.

/ 강정수 기자



영화 '싱글 인 서울'의 한 장면

로코 '싱글 인 서울' 이동욱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

유해진·김희선 주연의 '달짜지근해: 7510'과 강하늘·정소민 주연의 '30일'의 비통을 물려받아 올해 연말 극장가를 달굴 또 한 편의 로맨틱 코미디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이달 29일 개봉 예정인 이동욱·임수정 주연의 '싱글 인 서울'이다.

이동욱은 3일 서울 광진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영화 속 캐릭터가 다들 귀엽고 사랑스럽다. 관객들에게 플러팅(추파 던지기)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웃었다.

임수정도 "인간적 매력이 가득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말을 보탰다.

이동욱은 "당시 2분 정도 잠깐 나왔는데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셨다. 두 사람이 길게 같이 연기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해 주셨는데, 이번에 같이 하게 돼 너무 좋았다"고 털어놨다.

임수정도 "(이동욱의 깜짝 출연 당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후광이 비친 것 같았던 기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이번 작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 흥주민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해보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고객의 상생 스토리

“내 꿈이 멈췄을 때 다시 달릴 힘을 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좋아서 시작한 학원인데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현실에 부딪혀

'학원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대출 만기 연장에 원리금 상환 관리까지

제가 몰랐던 여러 방법들을

신한은행이 먼저 알려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

저와 함께 해준 신한은행 덕분에

아이들 꿈도, 저의 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고객에게 힘이 되는
상생금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신한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경기악화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대출 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119, 개인사업자 119,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등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응원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은행이 응원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8000)에 문의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3258-1호(2023.07.14~2024.07.14)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